

3. 장시의 발전

조선시대 향촌사회 내부의 상품유통은 장시(場市)를 통해 이루어졌다. 물론 정부에서 개설한 시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부터 서울에 시전이 개설되어 정부와 왕실의 물자조달을 맡고, 일반인에게도 상행위를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이 같은 시사(市肆)가 열린 곳은 나주·전주·경주 세 곳뿐이었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행정의 중심지였고, 조세와 각종 물산의 집산지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시사에는 각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들고 물자가 유통되었다.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쓰여질 당시나 그 이후에 시사가 개설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¹⁾ 하지만 이들 시사는 일반농민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설한 것이었다.

정부가 아닌 농민들의 필요로 만든 것이 장시였다. 조선시대 장시에 대한 공식적 기록은 성종 초에 처음 나타난다. 1470년(성종 1)에 흥년이 들어 전라도 인민이 서로 모여 시포(市鋪)를 열고, 장문(場門)이라 칭했다고 한다.²⁾ 이 장문은 정부에서 만든 교역소가 아니라 인민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품교역의 장소였고, 개시되는 장소는 주로 읍에 소재한 큰 길가였다. 그리고 최초의 장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일장이 아닌, 한 달에 2회 정도 개설되는 시장이었다.³⁾

성종대에 인민이 모여 열었다는 장문, 곧 장시는 주로 전라도지역에 집중되었다. 성종 초의 흥작은 전국적이었지만 특히 전라도 나주·광주·무안·함평 등 20여 읍에서 극심했다.⁴⁾ 흥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곡물을 비롯한 각종 물산의 교환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장시가 열렸던 것이다. 그러나 장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장시가 출현한 초기부터 정부는 “교역은 근본(농업)을 버리고 말업(상업)을 좇는 것이라, 물가가 앙등해 이로운 것은 적고 해악이 많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⁵⁾ 전통적 역상정책으로 장시의 증설을 반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장시개설에 대해 중앙정부는 금압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흥황 때 농민을 진휼해야 하는 지방수령은 진휼정책의 하나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⁶⁾

장시가 일단 출현하자 이들 지역에만 열리지 않고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상품유통은 사회적 생산력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금압책만으로는 상품유통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장시개설에 대한 금압책 역시 시기가 지날수록 약화되었고, 장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 16세기 초 1516년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慶尙道 慶州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全羅道 全州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全羅道 羅州牧. 이 책은 1481년(성종 12)의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해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지리지인데 증보된 부분은 ‘新增’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세 지역의 “市肆를 열어 교역했다.”는 기록에는 ‘신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종대의 상태를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중종대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곡물수송을 중심으로 ‘富商大賈’와 같은 상인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지역에도 시사가 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중실록』 권27, 성종 4년 2월 壬申條.

3) 『청중실록』 권20, 성종 3년 7월 壬戌條.

4) 『청중실록』 권9, 성종 2년 3월 辛巳條.

5) 『청중실록』 권20, 성종 3년 7월 壬戌條.

6) 『청중실록』 권8, 중종 4년 6월 甲子條.

7) 李景植,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57, 1987.

(중종 11) 충청도의 장시를 중앙정부에서 허락하고,⁸⁾ 경상도지역에서도 장시가 출현했다.⁹⁾ 1520년에는 “지금은 여러 도에 모두 장문이 열리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¹⁰⁾ 그리고 장시의 수도 증가하여 중종대에 이미 “옛날보다 배가 많다.”고 할 정도였다.¹¹⁾ 더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장시의 숫자는 더욱 증가했다.

순천에도 성종 초에 무안·나주처럼 장시가 열렸는지는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순천은 이들 지역과 생활권이 달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시기에 곧 이어 장시가 열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래 순천은 교통·군사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대응으로 평가될 정도로 전라도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조선 초기인 『체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는 순천의 인구는 약 2,700여 명이 된다. 장시가 처음 출현했던 지역 중 하나인 나주가 약 4,000명이었고, 무안이나 장시가 출현한 기타 지역은 순천보다 적었던 것으로 미루어 장시가 나타날 조건은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조선시대의 인구기록은 정부가 조세나 노동력을 수취할 인구를 주된 기록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조선 후기 기록으로 1759년(영조 35)에 만들어진 『輿地圖書』의 통계에도 순천의 호구는 1만 4,199호이고, 인구는 4만 1,199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전주(2만 1,176호, 7만 2,773명)와 나주(1만 7,858호, 5만 5,994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체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산출물산만 해도 오곡을 비롯한 갖가지 농산물·해산물·약초류가 있었다. 또 당시 상품유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소금을 생산하는 염소(鹽所)만 해도 9개소였고, 읍성 안에 있는 염창에는 50명이 근무하며, 봄·가을로 공납하는 소금만 해도 409석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소가 1개, 도기소가 3개나 되었다.¹²⁾ 각종 농·해산물만이 아니라 수공업제품까지 생산되고 있어, 상품유통을 위한 장시가 마련될 배경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1618년 이수광이 순천부사로 재임하면서 만든 『충평지』는 현존하는 지방지 중에서도 편찬연대가 오래된 것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5일장 1기(基), 10일장 1기로 총 2기의 장이 순천지역에 열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내장(府內場)은 5·10·15·20·25·30일에 열리는 5일장이었고, 광천장(廣川場)은 5·15·25일에 열리는 10일장이었다. 또한 석보장(石堡場)은 『충평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잠깐 동안 개설되었다가 『충평지』 편찬시기를 즈음해서는 폐지되었다고 한다.¹³⁾ 물론 각 장시의 정확한 개설시기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8) 『중종실록』 권27, 중종 11년 11월 丁未條.

9) 『형종실록』 권3, 명종 원년 2월 戊申條.

10) 『중종실록』 권38, 중종 15년 3월 己酉條.

11)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1월 戊戌條.

12) 『체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순천조.

13) 『충평지』 장시조(고려대 소장 B10-A92).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에서 조선시대 장시의 발전을 논할 때 예로 드는 것이 『충평지』 장시조이다.(홍희유, 『조선상업사(고·중세편)』)

물론 1618년의 『충평지』보다 좀더 앞서 1608년 편찬된 경북 안동지역의 『永嘉誌』의 장시조에도 11개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17세기 초에 이처럼 많은 장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1770년에 간행된 『통국문헌비고』의 장시기록과 일치한다는 점, 현존하는 『형가지』가 1791년에 개수되었다는 점 등 때문에 1791년 감교하면서 『통국문헌비고』의 장시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본다.(韓相權,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慶尙道地方을 中心으로」, 『韓國史論』7, 1981, 187쪽) 따라서 『충평지』의 장시기록은 개시일까지 남아

수 없지만, 앞서 본 15세기 말 이후 각종 자료의 장시개설에 관한 기사와 열렸다가 폐지되었다는 석보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미 이전 시기, 늦어도 16세기에는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시들이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서로 연계되어 열렸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증평지』의 2개 장시는 5일장과 10일장으로 5, 15, 25일의 경우 서로 겹치고 있어 상인이나 농민들이 두 개의 장시 중 하나를 선택해 상품을 사고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 순천의 장시는 10일장체제에서 5일장체제로 넘어가는 과도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장시가 대개 그렇지만, 이 시기까지는 여전히 행정의 중심지였던 읍이나 정치·군사적 요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개설되고 있었고, 순천의 장시도 그 면에서는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장시가 상호간 연계를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좀더 뒤시기의 일이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면 전국의 장시는 종래의 읍치(邑治) 중심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 산곡간(山谷間)까지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열리고 있었다.¹⁴⁾ 해변을 낀 순천의 경우에는 연안지역으로 장시개설이 확대되고 있었다. 1729년 순천부사였던 홍중징(洪重徵)이 편찬한 『신증증평지(新增增平志)』에는 부내(개시일 2·7일), 석보(5·10), 해창(海倉 : 3·8), 성생원(成生院 : 4·9), 부유(富有 : 2·7), 쌍암(雙巖 : 3·8), 괴목정(槐木亭 : 4·9), 동점(銅店 : 5·10), 대곡(大谷 : 1·6) 9개의 장시가 실려 있다. 17세기 초 『증평지』 단계에 존재했던 광천장이 소멸되고, 없어졌던 석보장과 함께 새로 개설된 장시가 8개나 되었다.¹⁵⁾ 이 장시들은 모두 5일장으로, 이 시기에는 이미 10일장은 없어지고 5일장체제가 확립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10일장체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던 데 비하면, 순천의 장시체제는 선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장시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배경으로는 이무렵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화폐의 전국적 유통, 수공업에서 부역노동이 임금노동제로 변하기 시작한 것과 대동법의 실시 등 사회 제반 분야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상품경제 발달이 촉진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사용하면서 널리 퍼진 은화의 유통이 일반화되고, 17세기 후반에는 상평통보가 발행되면서, 종래 재화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화폐가 장시의 거래에서도 사용되는 등 화폐경제가 이 시기에 이르면 일반화되었다. 수공업 역시 부역노동에서 임금노동화하면서, 공납의 소공업제품 생산이 상품생산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더구나 광해군 이후 100여 년에 걸친 대동법의 정착과정은 유통경제에 큰 변화를 주었다. 공물을 쌀로 받는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貢人)이 정부나 왕실의 소요물품을 조달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됨으로써 공인이 자금을 선대하여 수공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했고, 수공업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상품화했다. 이 과정에서 장시에 유통되는 상품량의 증가는 필연적이었고, 장시 역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순천의 경우에도 1720년대 『신증증평지』가 편찬된 후 약 50년 뒤인 『통국문헌비고』가 편찬된 1770년에 이르면 장시수가 증가해서 모두 13개의 장시가 개설되었다. 『통국문헌비고』에 실린 순천의 장시는 읍내(2·7), 수영(水營 : 4·9), 석보(5·10), 착마정(捉馬亭 : 3·8), 성생원(省生院 : 4·9), 방축두(防築頭 : 1·6), 해창(3·8), 구만(九萬 : 5·10), 백아(白鵝 : 4·9), 선원(饌院 : 3·8), 부유(3·8), 본곡(本谷 : 1·6), 도고개(道古介 : 3·8) 등이었다. 이 중 『신증증평지』와 비교해볼 때 성생원과 같이 동음이어는 동일한 장시이며, 읍내는 『신증증평지』

있는 지방지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희변사등록』 권53, 숙종 29년 3월 17일조.

15) 『신증증평지』(奎章閣所藏 10791).

의 부내, 본곡은 대곡과 같은 장시이다. 또 구만장·백아장·선원장은 개시일과 지리적 위치로 미루어 각각 『친증승평지』의 동점장·괴목정장·쌍암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729년 『친증승평지』 단계의 장시에 비해 1770년 『통국문헌비고』 단계에서 새로 개설된 장시는 수영·방축두·착마정·도고개 4개에 이른다.

신설되는 장시들은 순천의 성장하는 유통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적 목적 및 해안의 포구를 통해 상품이 유통되고 있던 사정 등 다양한 조건이 그 배후에 있었다.

이 가운데 방축두장의 신설은 읍내·석보·해창·성생원장과 관련이 있다. 이들 4개의 장시는 읍에서 해안에 이르는 대로에 20리 간격으로 배치되어 2·7, 3·8, 4·9, 5·10일로 날짜를 달리해 개설되었는데, 1·6일 열리는 방축두의 개설로 이 지역에서 1개장은 항상 열리는, 장시의 상설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영장은 수영내에 열리고 있어 군사요충지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석보장과 10~20리를 떨어져 4·9일에 개설되고 있어 석보장의 5·10일과 상호 연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또 3·8일의 착마정장과 5·10일의 구만장은 같은 서면(西面)에 개시되었고, 개시일만으로는 다른 장시와의 연계를 알기 어렵지만 해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물산의 집적과 교통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신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고개장은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신설된 이유를 추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1770년 순천 지역에 새로 나타난 장시는 분명히 다른 장시와의 연계에서, 또 군사적·경제적 이유에서 증설되고 있었고, 양적 증가와 함께 장시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각 문헌의 장시비교

장시명	위 치	충평지』	친증충평지』	동국문헌비고』	함원십육지』
부내(府內)	관문(官門) 밖	5·10	2·7	2·7 = 읍내	2·7
광천(廣川)	-	5·15·25 (10일장)	-	-	-
석보(石堡)	동 60~70리, 여수면	폐지	5·10	5·10	5·10
해창(海倉)	동 20리, 용두면	-	3·8	3·8	4·9
성생원 (成生院)	동 40리	-	4·9	4·9 = 성생원 (省生院)	-
부유(富有)	서 60~70리, 주암면	-	2·7	3·8	2·7 = 부창 (富倉)
쌍암(雙巖)	서 40리, 쌍암면	-	3·8	3·8 = 선원(饜院)	3·8 = 성산 (星山)
괴목정 (槐木亭)	북 50리, 황전면	-	4·9	4·9 = 백아(白鵝)	4·9 = 괴목 (槐木)
동점(銅店)	서면	-	5·10	5·10 = 구만 (九萬)	-
대곡(大谷)	서 80리, 송광면	-	1·6	1·6 = 본곡(本谷)	3·8
수영(水營)	동 80리, 수영성	-	-	4·9	-
방축두 (防築頭)	동 10리, 용두면	-	-	1·6	-
착마정 (捉馬亭)	동 30리, 서면	-	-	3·8	-
도고개 (道古介)	-	-	-	3·8	-
송천(松川)	남 40리, 별량면	-	-	-	3·8

비고: ① 숫자는 장시의 개시일이고, 충평지』의 광천장 이외에는 모두 5일장임.
 ② 장시명은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기됨.

그러나 증설된 장시는 1830년대에 서유구가 편찬한 『힘원십육지(林園十六志)』 단계에 이르면 장시권의 변화에 따라 통폐합의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구의 『힘원십육지』에는 부내장, 송천장, 석보장, 해창장, 괴목장, 대곡장, 부창장(富倉場), 성산장(星山場) 8개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괴목장은 그 소재지로 볼 때 『친증승평지』의 괴목정장, 『통국문헌비고』의 백아장과 같고, 성산장은 『친증승평지』의 쌍암장, 『통국문헌비고』의 선원장과 같은 장시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본다. 또 대곡장은 『통국문헌비고』의 본곡장, 부창장은 부유장과 같다. 따라서 『통국문헌비고』에 기재된 13개의 장시 중 6개의 장시, 곧 성생원장·동점장·수영장·방축두장·착마정장·도고개장이 소멸되고, 송천장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장시라 할지라도 장시의 개시일이 달라지고 있었다. 해창장은 『친증승평지』나 『통국문헌비고』 단계까지는 모두 3·8일에 열렸지만 『힘원십육지』에서는 4·9일, 대곡장은 1·6일에서 3·8일이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장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각 지역에 분산적으로 열리고 있던 소규모 장시들이 상품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더욱 큰 규모의 대장(大場)에 흡수되는 것이 이 시기 장시발달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해창장의 경우 『통국문헌비고』의 성생원장과 20리 떨어져 장시일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까워, 장시일을 4·9일로 바꾸면서 장시일이 같게 된 성생원장을 흡수했고, 같은 용두면에 소재했던 방축두장까지 흡수했던 것이다. 물론 방축두장은 부내장과 1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부내장에 흡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성산장, 곧 『통국문헌비고』의 쌍암장은 인접한 구만장과 착마정장 등을 흡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국문헌비고』 단계에서 군사적 요충지에 신설되었던 수영장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석보장에 흡수되고 말았다.¹⁶⁾ 수영장의 소멸은 19세기 초엽에 이르러, 장시가 군사적인 중요정보다는 상품유통의 내재적 요구에 따라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힘원십육지』 저술시기의 순천 장시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몇 개의 시장권으로 분화되고 있었다. 이 8개의 장시를 장시 사이의 거리·위치·개시일 등을 기초로 하여 시장권을 재구성해보면, 첫번째 지역으로 부내장(2·7), 송천장(3·8), 석보장(5·10), 해창장(4·9)과 두번째 지역으로는 괴목장(4·9), 대곡장(3·8), 부창장(2·7), 성산장(3·8) 등을 나누어볼 수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이웃 군현의 장시이지만, 장시망의 연결에서는 순천의 장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장시도 있었다. 곡성의 석곡장(石谷場)이 그러하다. 곡성의 석곡장은 두번째 장시망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5·10일장으로, 5·10일장이 없던 두번째 장시망을 보완해주고 있었다. 물론 순천의 장시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다른 군현의 장시망을 보완해주는 경우도 있다. 괴목장(4·9)은 곡성의 읍내장(3·8), 석곡장(5·10), 삼기장(三岐場 : 1·6)과 가까우면서 곡성장의 장시망을 보완하여 연계되고 있었다.¹⁷⁾

그리하여 18세기 후반 실학자 이익(李瀾)이 지적한 대로 순천의 경우에도 20~30리 사이에 5일장이 하루도 비는 날이 없는 시장권이 지역마다 형성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¹⁸⁾ 이웃 군현과도 장시망이 연결되면서 순천지역의 상품유통은 지역적 고립성을 벗어나 다른 지역과 긴

16) 여기서는 『힘원십육지』에 기록되지 않은 장시가 소멸된 장시라고 파악하고 설명하였지만, 이들 장시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규모가 작은 장시는 조사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계절에 따라 성수기에는 개시했다가 그 이후에는 폐지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17) 金大吉, 「18~19世紀 地方場市에 대한 一考察」, 『釜龍德停年紀念史學論叢』, 1988, 404~409쪽.

18) 『星湖僊說類選』 권4 下, 人事篇6 治道門3 墟市條.

밀한 연계 속에 발전해가고 있었던 것이다.